

제3강 정신분석, 혹은 영원한 가족극장

최진석

0. previous CSO

- 욕망과 분열자의 세계사
- 세 가지 종합
- 부분대상과 정신분석의 굴절

1. 아빠-엄마-나의 신성한 삼각형

오이디푸스는 하나의 구조다. 소쉬르, 야콥슨, 레비-스트로스, 그리고 전기 라캉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오이디푸스 제국주의는 기표의 제국주의, 곧 구조주의의 최전성기에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오이디푸스는 우주적인 보편적 상징(universal catholic symbol)의 지위에 등극하게 되고, 모든 상상적인 것 너머에 유일하고 절대적인 상징으로 세워진다. 모든 것은 오이디푸스를 통해 해석되고, 오이디푸스를 통과해서 의미부여받는다. 심지어 오이디푸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곳조차 사실 오이디푸스 만들기 위해 비워진 공간으로 의미를 갖는다. “가령 폐제 foreclosure라는 개념은 고유하게 구조적인 누락을 지시하는 것 같다”. 즉 그것은 오이디푸스가 재기입되기 위해 비워진 자리다. 상징계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법, 오이디푸스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위해 비워지거나 기입되어지는 과정에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기관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 법이 고형화된 형태로 유지되는 한, 그것은 욕망의 분출과 범람으로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문제는 기관화의 경향, 정해진 형태를 넘쳐나는 힘을 다시 붙잡아 특정한 형식 속에 가두려는 구심적인 힘의 경향이다. 오이디푸스가 아닌 오이디푸스화가 문제다. “우리가 물음을 던지는 것은, 이미지 및 구조와 혼인한 자원으로 서 정신분석이 실천적·이론적으로 전념하는 맹렬한 오이디푸스화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긴 역사, 그리고 그것이 초기에는 프로이트에게 생물학적 실재론과 경쟁적 구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론적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단지 오이디푸스는 하나의 가설이라고 주장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프로이트 등은 분명 애초에 오이디푸스화를 가로막는, 그것에 선행하는 구조화되지 않은 힘의 영역들을 눈치채고 있었다. “프로이트와 초기 정신분석가들이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로운 종합들의 영역, 즉 끝없는 연결들, 배타적이지 않은 분리들, 비-특유적 결합들, 부분대상들, 흐름들이기 때문이다. 욕망 기계들은 무의식의 바닥에서 오르렁거리고 웅웅거린다”. 그러나 “절대권자 오이디푸스의 설립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은 상실되거나, 또는 적어도 특이하게 타협된다. 자유연상이 다의적 연결들을 향해 열리지 않고 오히려 일의성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 버린다. 무의식의 모든 사슬은 일대일 대응되고, 선형화되고, 전체군주 기표에 매달린다. 모든 욕망적 생산이 으깨지고, 재현의 요구들에 굴복하고, 재현 속에서 대표와 재현내용의 음침한 놀이들에 굴복한다”.

2. 프로이트의 세 텍스트

(1) 「편집증자 슈레버」(1910)

“그 법원장의 망상처럼 그토록 풍부하고 그토록 미분화되고 그토록 〈성스러운〉 망상을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는 주제로 환원하는가?” 이것이 들뢰즈·가타리의 물음이며, 이 책 『안티 오이디푸스』의 중심적 문제 제기인 오이디푸스화에 대한 두 저자의 도전이다. 도대체 어떻게 정신분석은 분석의 극단과 침점에서 아버지를 끌어들이고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로 수렴시키고 마는가? 탄압자 플레이지히나 슈레버의 형, 그 모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아지고 ‘리비도의 동성애적 양진’으로 진단된다. 그러나 슈레버의 방대한 자서전은 단지 아버지에게 바쳐진 헌사가 아니다. 오히려 “슈레버의 망상이 지닌 막대한 정치적·사회적·역사적 내용에 관해서는, 마치 리비도가 이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양 한 마디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

물론, 종교 및 신화학적 논의들이 개진되긴 한다. 그런데 신화는 매개다. 신화는 인간과 자연이 직접적으로 생산의 일의성에 포개지지 못한다는 전에서 양자를 이어주는 서사다. 달리 말해 신화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직접적 자기 생산은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무의식에 대해 말해 본다면, 무의식에 종교·신화적 표상을 연결짓고, 그럼으로써 무의식은 특정한 방식으로 영토화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 표상을 어떤 것으로 세우느냐는 관건이 아니다. 가령 포이에르바흐가 신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았을 때, 그는 유물론적이고 인간학적 전복을 단행한 것인가? “신을 부정하는 자는 〈2차적인 것〉 밖에 하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실존을 내세우기 위해,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놓기 위해(변형을 인정함) 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초월성과 내재성이다. 신이든 인간이든 자연이든 초월적인 것으로 표상되는 순간 생산의 일의성은 파괴된다.

(2) 「매맞는 아이」(1919)

오이디푸스 제국주의. 그것은 모든 욕망을 깔때기마냥 아버지의 전제적 기표로 빨아들이고, 그 아래에 질서정연하게 배분하는 구조다. 서로 다른 것들, 부분화된 것들을 하나의 기원과 목표, 법칙으로 끌어당기고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도그마다. 소년이든 소녀든 오이디푸스라는 그물에 걸리면 그 어떤 구별도 무용해지고, 단지 오이디푸스의 자식으로 호명될 따름이다. 여성의 기원을 부정했던 프로이트는, 소녀의 세 번째 환상에서 마침내 인간 일반(Mann)에 대한 법의 보편적 지배와 굴종, 마조히즘적 쾌락의 회로를 발견한다.

부분 대상은 결코 유기적 신체의 일원성, 그 목적론에 포획되지 않는다. 하나의 기계로서 유기적인 작동을 할 수는 있어도, 결코 유기화됨으로써 일자의 목적에 봉사하지 않는다. 부분 대상은 기관 없는 신체 위를 부유하며 갖가지 방식으로 결합하고 분리되며 (오)작동하는 욕망하는 기계다.

결정적 지점은 거세다. 거세를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즉 욕망의 자기-생산을 위협하고 불온한 것으로 인식하여 절제시키는가, 혹은 그 증식적 운동에 기름을 붓는가? 일반적인 ‘사회화’, 다시 말해 ‘정상인’의 과정은 전자다. 우리는 욕망을 거세당함으로써, 오이디푸스가 됨으로써 이 사회에 적응한다. “거세는 오이디푸스화의 완성이다. 오이디푸스화란 정신분석이 무의

식을 거세하고 거세를 무의식 속에 주입하는 조작이다”. 그러나 무의식과 욕망은 법에 완전히 환수되지 않는다. 거세 자체가 하나의 환상이다. “무의식은 오이디푸스도 모르지만 거세도 모른다. 무의식이 부모도, 신들도, 법도, 결핍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여성 운동에 대한 코멘트. 왜 여성 운동이 유의미한가? 프로이트는 여성은 페니스의 결여로 인해 필연적으로 남근을 선망하게끔 운명지어진, 그래서 남성보다 열등한 제2의 성으로 운명지어진 존재다. 달리 말해, 여성은 거세를 해부학적으로 타고났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남근에 필연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해방 운동은 말한다. “우리는 거세되어 있지 않다, 당신들은 진저리가 난다”. 흥분을 가라앉히자.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답변은 프로이트나 라캉의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프로이트와 라캉은 여성적인 것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에게 여성적인 것은 남성적 질서에서 이탈하는, 기묘한 힘의 유동이다. 이에 대해 프로이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라캉은 실재의 차원을 연결지었다. 하지만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여성이란 어디까지나 ‘되기’ 즉 ‘생성’의 문제다. 여성 자체가 아니라 여성적인 것으로서의 무의식, 달리 말해 남성적 질서에 이반하는 힘으로서 비고정적이고 결정 불가능한 힘인 여성성이 관건이다.

「매맞는 아이」의 환상은 전형적인 집단 환상이다. 프로이트는 소녀들의 환상 세 번째 단계에서 오이디푸스의 전면화와 그것의 피학적 감수, 내면화를 읽어냈다. 즉, 어른들이 때리고 남자 아이들이 맞는다. 소녀는 남자가 되어 그것을 지켜보며 쾌락을 느낀다. 하지만 프로이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런 환상의 장면들에 숨은 이면, ‘사회적-욕망적 기계의 출현’이다. 왜 이 장면을 부모-아이, 어른-아이, 지배-복종의 오이디푸스적 끈으로 묶어야 하는가?

질문: 욕망이 앞서는가, 법(오이디푸스)이 앞서는가? 제도가 욕망에 규칙을 부여하는가(정신분석), 욕망이 제도에 규칙을 부과하는가?(분열분석) ‘재화’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생산을 규정짓던 요소들은 감응과의 관계, 그리고 욕망/충동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이 규정되어야 한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적 생산과 생산 관계를 현실의 최고 심급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제, 진정 생산이 문제라면 사회적 재화를 기준으로 한 예전의 심급 대신, 감응과 욕망을 포함한 생산을 사유해야 한다. 사회체의 하부 구조는 욕망하는 기계다.

(3) 「끝이 있는 분석과 끝이 없는 분석」(1937)

욕망의 경제는 리비도의 양적 분배를 최우선적 과제로 놓는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간과한 것은, 양적 분배와 더불어 리비도 경제에는 질적 인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거세는 단일하지 않다. 욕망의 결락을 만들고 순환 고리를 형성시키는 거세의 구멍조차 단일하지 않고, 다양한 구멍들에 의해 얼마든지 범람과 이접의 현행성을 가동시킨다. 둘째, 리비도는 항상 불균등하게 분배되며, 그로써 충동과 대립의 현행성을 낳는다. 셋째, 리비도는 동일한 흐름이 아니다. 그것은 분배의 형태에 따라 빠르고 느림, 끈적임과 흐름 등의 질적 특성들을 갖는다. 프로이트는 이들 중 오직 한 가지 형태에만 분석의 적합성을 부여했다. 즉, 분석 가능한 환자의 조건으로 성실성과 언어적 정합성 등을 꼽았을 때, 실상 프로이트는 지극히 오이디푸스적 구멍에만 들어맞는 리비도 경제를 선택적으로 추출한 것이다. 때문에 그가 실제 임상 과정에서 종종 마주쳤던 낯설고 처치 곤란한 리비도의 흐름들은, 실상 “자아의 저항이기보다는 오히려 욕망적 생산 전체의 요란한 아우성”이었다.

신경증 전문가 프로이트에게 도착증자, 정신병자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왜냐면 오이디푸스라는 전능한 제국의 ‘외부’에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처에서 흘러넘치고 규칙과 법을

파괴하며 제멋대로 넘쳐난다. 리비도의 “질적 경제학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여기서는 흐름들이 새어 나오고, 삼각형을 가로질러 지나가, 삼각형의 꼭짓점들을 서로 떼어 놓는다. 오이디푸스의 마개는 이 흐름들을 제어할 수 없다. 잼 속에서도 물 위에서는 마개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 흐름들은 용암의 저항할 수 없는 압력 내지 물의 꺾을 수 없는 침투력을 행사하며 삼각형의 벽면을 뚫고 바깥으로 나간다”.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오이디푸스는 허구인가? 그렇다. 그러나 오이디푸스화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중인 효과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